

# 해남군 “농산물 출하 전 농약잔류검사 무료로 받으세요”

###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463종 항목 검사

### 출하 1~2주 전 채취 농산물 밀봉 후 접수

해남군은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PLS(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산물 출하 전 농약잔류검사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농약잔류검사는 시중에 유통하려는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성분을 검사해 부적합 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확과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농산물에 허용되는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이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들은 예전보다 더욱 주의 깊게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할 경우 과태료나 해당 농산물 폐기, 회수 등이 이뤄진다.

농약잔류검사는 해남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에게 무료 지원하며, 분석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1~2주 전에 채취한 농산물(0.5~3kg)을 오염되지 않게 밀봉 후 채취 당일 접수하면 된다.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한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로 방문 접수하며, 결과는 20일 이내 방문수령 또는 우편물료 받아볼 수 있

다.

해남군에서는 2021년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를 개관, 운영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1,131건의 분석을 실시했다.

센터에서는 농가에서 의뢰한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 관리는 물론 로컬푸드매장과 학교공급식으로 공급되는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전한 농산물의 출하로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예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안전성분석을 통해 해남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농산물 판매 확대는 물론 농약잔류로 인한 행정 처분 등 농업인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국립 전남 호국원 유치 ‘땀박질’

장흥군이 국립 호국원 유치를 위해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은 2월 14일과 15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임실, 이천, 괴산 호국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시설 관계자를 만나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국립 호국원은 현재 경기 이천, 충북 괴산, 전북 임실, 제주, 경북 영천, 경남 산청 등 전국 6곳에 설치돼 있다. 지난 12월 강원도 횡성에 건립이 확정되면서 전남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광주와 전남 도내 어느 곳에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여 호국원 유치 최적지로 꼽힌다.

장흥에 호국원이 건립되면 광주·전남권 유

족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전남권 외 타지역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 것으로 장흥군은 보고 있다.

장흥군은 안중근 의사를 배향하는 국내 유일의 사우인 해동사가 있고, 동학농민혁명 4대 전적지 중 최후의 격전지로서 의의성이 높은 문림의향으로 알려져 호국원 이미지에도 부합한다.

근래 조성되는 호국원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공간으로 제공되어 국립공원의 개념이 강한 추세다.

장흥군에 호국원이 들어서면 방문객 증가로 관광, 숙박 수요가 늘어나 지역경제 수익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김도영기자

## 보배섬 진도 특산품 쉽고 편하게 구매하는 ‘디지털 진도’ 구축

### 온라인 판매형 상품개발·포장·유통클릭 택배 등 디지털 물류 기반 조성

진도군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강화를 위해 ‘디지털 진도’를 구축한다.

“디지털 진도”는 유통과 물류를 변화시켜 보배섬 진도군의 우수한 농수특산품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쉽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은 기초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산영통상지원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 마이크로 플랫폼 시스템 실증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또 효율적인 택배 서비스 시스템을 위해 ㈜한진과 택배 물류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군은 ▲온라인 판매형 상품개발·포장 지원 ▲T커머스 등 뉴미디어 채널에 우수상품 대량 판매 ▲유통클릭 택배 등을 도입해 디지털 물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쇼핀엔터와 CJ EMN의 T커머스 방송 판매를 지난 23일(목)부터 시작, 다양한 디지

털 플랫폼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해 진도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단 관계자는 “유통·물류체계 혁신을 통한 디지털 진도 구축으로 전국의 많은 소비자들이 진도군의 우수 농수 특산품을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라인 전용 상품 개발부터 주문 즉시 전국 택배 발송 시스템까지의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강진 한우, 청자축제장서 불티나게 팔린다

### ‘1등급 이상 한우’ 하루당 600kg 물량 연일 조기 매진

제51회 강진청자축제를 찾는 인파가 연일 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 있다. 바로 강진 한우 판매장.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청자축제 현장에서는 등심, 안심, 채끝, 치마, 엽진, 부챗살, 국거리용, 불고기용 등에 관계 없이,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예를들어 정상이 15,700원짜리 한우 안심(1+등급, 100g)은 7,550원에, 13,350원짜리 채끝살(1+등급, 100g)은 6,650원에 구입 가능하



다. 반찬으로 애용되는 불고기와 국거리(1등급, 100g)도 2,2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축제 현장에서 5만 원 이상 구입하면

5,000원 상당의 강진사랑상품권을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 할인 혜택은 더 커진다.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오전, 오후 각각 300kg으로 총 600kg이지만 판매 시작과 함께 순식간에 동이 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축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 오후 4시에 판매가 시작되고, 마지막 날인 3월 1일은 오전만 판매하며, 1인당 최대 2kg까지 구매할 수 있다. 판매 장소는 먹거리 타운 앞으로, 이동식 한우 판매 트럭에서 구입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할인 이벤트로 소값 하락 대비, 한우 소비 촉진, 축제 관람객 유입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청자축제의 즐거움도 만끽하고, 1등급 이상 한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도 꼭 누리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